

##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여라!

이남순(데레사)

수원 가톨릭 성 빈센트병원 자원봉사자

### 행복하여라, 가련한 이를 돌보아 주는 이! (시편 41,2)

운영해 왔던 미용실을 정리할 무렵, 수녀님과 우연한 인연으로 호스피스 교육을 받았다. 2002년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성 빈센트 병원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마음에 다짐은 했지만, 처음 시작은 떨림과 두려움으로, 혼자 환자 방문을 하지 못해 병실 문밖에서 서성일 때, 선배 봉사자가 내 손을 끌며 같이 환자 앞에 서게 되었던 그때의 어설피기만 했던 일이 생각난다.

오랜 병원 생활에서 이발도 못 하시고 그야말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 안 되는 형제님들의 머리를 상큼하게 정리하고 세발해드리고 나면, 환자의 얼굴이 십 년은 젊고 건강해 보인다고 주위 분들이 새 장가가도 되겠다며 너스레를 떨면서 웃음을 터트리며, 보람을 느낄 때가 많다. 그럴 때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미용이라는 달란트를 주신 것에 늘 감사하게 된다. 오랜 침상에서의 야윈 손과 발에 온수 포를 얹으면서 꼭꼭 지압해가면 어느새 감았던 환자의 눈이 고맙다는 표정으로 인사하면서 감사의 미소라도 지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워 얼굴을 돌리곤 한다. 농사를 지으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고통과 힘들었던 이야기, 또는 재미있게 지내온 낭만과 슬픔의 추억을 나누

다 보면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아픔을 삼키느라 애쓰는 환자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마음에 가슴이 저려온다.

나이가 드신 분에게는 흘러간 옛 노래를, 절에 다닌다는 분에게는 회심곡을, 흥이 많은 어르신들과는 민요를 불러드리면서, 힘이 없어 안 나오는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며 눈물 흘리는 환자에게서는 지나온 시간 속에서 잠자고 있던 내면의 감성이 일깨워져 더 많은 에너지를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다.

그렇게 호스피스와 인연이 되어 봉사하기를 15년, 이 모든 일은 나와 내 가족에게는 상관없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던 순간순간이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던 조카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어느 공휴일 오후의 일이다. 오랜만에 점심을 같이하려고 만난 조카 윤진이의 일그러진 모습에 난 너무 놀랐다. 난 언니에게 연락하여 되도록 빨리 종합 진단을 받아 보라고 권했다. 병원에 입원하여 진단받은 결과 신경교육종이라는 희귀성병이란단. 담당 의사는 병원에 늦게 왔다고 말씀하셨다. 그로부터 우리 가족

은 기적이라는 아주 작은 희망을 싹틔우며 윤진이와 함께 병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조카는 8시간의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수술결과 1년 정도의 시간이 조카에게 남겨진 시간이라는 주치의 말씀에 우리는 낫을 잃고 말았다. 가톨릭 신자도 아닌 언니는 이 긴 수술 시간 동안 병원 성당에 앉아 성모님, 예수님, 내 아들 줌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기도하면서 두 눈이 툭툭 붓도록 평평 울고 있었다. 그로부터 2차 방사선 치료를 마친 후 소람한방병원에 영양차입원하러 갔다가 발작이 너무 심해 가까운 삼성 의료원 응급실로 갔다. 담당 의사는 치료 방법이 없다며 퇴원하란다. 퇴원 후 조카는 성 빈센트 병원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하게 되었다.

병원 생활 중 조카는 수녀님으로부터 받은 교리가 결실을 보아 요셉이라는 세례명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감격의 순간을 맞보게 되었다. 병원 원목 신부님께서 미사를 통해 세례성사를 베푸시는 동안 조카의 얼굴 모습은 평온하면서도 약간 생기가 돌았다.

그해 스산하고 쓸쓸한 가을 어느 날 밤, 조카는 그렇게 하느님 품으로 갔다. 모든 고통 다 내려놓고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라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던 언니는 얼이 반쯤 나가 있었다.

이렇게 조카 윤진이는 엄마, 아빠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하느님 품으로 떠나갔다. 언니는 매주 월요일 6시 새벽 미사와 평일 미사에도 한 번도 빠짐 없이 아들을 위해 연미

사를 봉헌해야만 숨을 쉴 수 있다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언니와 형부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을 떠나보낸 후 예비신자 교리반에 등록하였다. 그 후 6개월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노력한 끝에 드디어 8월 13일 권선동 성당에서 개근상에 이어 언니는 엘리사벳으로, 형부는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세례성사를 받았다. 조금은 외롭고, 슬프고, 아프지만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해 가고 있는 언니와 형부를 보면서 하느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내가 사는 곳에서 성 빈센트 병원은 시내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한다. 매주 금요일만 되면 아침을 대충 먹고 버스에 몸을 맡긴다. 오늘 내가 만날 환자들을 위해 당신 손으로 그들을 감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성모님께 목주기도를 바친다.

나는 조카의 투병 생활을 통해 호스피스 가족들이 많은 고통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가를 체험하게 되었다. 봉사를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설 때면 왠지 모를 뿌듯함과 감동이 밀려온다.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감싸주신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낄 때가 많다.

오늘도 나는 봉사를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서면서 호스피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해 기도와 봉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해 본다. 사람들은 흔히들 말한다.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다, 먼저 가신 호스피스 환자분들이 나에게 던져 주시는 메시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지…”